

# “성평등 문화축제에 초대합니다”

###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일원서 23일 젠더문화축제 개최 퀴즈쇼·젠더극장 등 남녀노소 참여 확대 프로그램 신설

도내 여성계가 하나되어 추진하는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제8회 젠더문화축제가 오는 23일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일원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올해로 여덟 번째를 맞는 젠더문화축제는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해 도내 국회의원과 기초자치단체의원, 시장·군수 각급 기관장 및 여성단체장, 도내 대학생, 재직남성·여성, 유치원생 및 초·중·고등학생 1,300여명이 함께 할 예정이다.

“평등 세상을 향한 여덟 번째 이야기”라는 주제로 도내 37개 여성관련 기관 및 단체가 공동주최위원회를 구성해 행사프로그램을 공동주관하는 등 여성·대학·기업·종교·기업 관련 단체들의 참여형 축제로 다채로운 프

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특별강연으로 ‘디지털 성폭력의 실태와 구조’라는 주제로 이효린 대표(한국 사이버 성폭력 대응센터)의 강연이 진행될 예정이며, 유치원·어린이집 재원생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인형극’과 재직 여성들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너의 목소리를 들려줘!’도 마련돼 있다.

이와 함께 젠더극장·2018 청년 여성영상제작프로젝트 지원작·‘여자는 여자의 미래다’ 상영 및 감독과의 대화 시간과, 성평등 상식 퀴즈쇼 ‘젠더벨을 울려라’가 마련돼 있으며, 또 ‘젠더 공감 토크’를 통해 여성들의 다양한 젠더문제를 공유하고 공감하는 프로그램도 구성돼 있다.

또한 정주영 대표(같이교육연구소)가 진행하는 청소년 토크 ‘나답게 살아가기’가 신설돼 미디어 리터러시를 통한 성 역할 고정관념 타파 토크 쇼가 전라중학교 학생들의 참여로 함께 할 예정이다. ‘낙태죄 헌법 불합치, 그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한 젠더정책포럼은 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에서 진행하며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보장에 관련한 슬기롭게 조화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할 예정이다.

이유에 센터장은 “온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성평등 축제에 초대한다”며, “우리지역에서 시작된 젠더문화축제가 성평등 문화 확립을 주도해 전국으로 확산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도민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063)254-3814 또는 홈페이지(www.jwec.re.kr)를 통해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정은성 기자



## 조선시대 서간문화 엿보다

### 국립전주박물관, 수계도·원이엄마 편지 진본 특별공개

국립전주박물관(관장 천진기)은 ‘선비, 글을 넘어 마음을 전하다’ 특별전을 지난 4월 5일부터 6월 9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조선 선비들의 우정, 사랑, 애정, 그리움 등 다양한 감정이 드러난 편지를 통해 관람객들이 조선 선비들과 가까워지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특별한 유물들이 공개된다. 특별공개에서는 조선 문인들의 우정을 엿볼 수 있는 ‘수계도’, 부부 간의 사랑을 느껴볼 수 있는 ‘원이엄마 편지·미투리’ 진본이 18~27일까지 10일간 특별 공개된다. 또한 부부의 사랑을 기념하며 편지 발송행사가 오는 20일 오후 2시부터 국립전주박물관 시민갤러리에서 개최된다.

‘수계도’는 조선 후기에 활동하던 화가 혜신(1827~1873)이 그린 그림으로 조선 후기 문인들이 시문을 통해 우정을 나누는 장면을 세밀한 필치로 담았다. ‘수계도’에 그려진 선비들은 편지를 통해 교류하던 중인들이었으며 ‘수계도 시회’를 주제로 전시

현된 고통기 등을 통해 19세기, 중인 세력이 문예를 주도해 나갔음을 엿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작품이다.

‘원이엄마 편지’는 이응태(李應台, 1566~1586)의 묘에서 발견된 조선시대 한글편지로 아내(원이엄마)가 병으로 죽은 남편(이응태)을 그리워하며 쓴 편지다.

편지에서는 죽은 남편을 그리워하며 꿈에서도 보고 싶다고 적고 있어 남편에 대한 애절한 감정이 느껴진다. 특별공개 기간에는 편지뿐 아니라 원이엄마가 남편의 병이 낫기를 바라며 자신의 머리카락과 마를 섞어 만든 ‘비투리’도 전시된다.

특히 부부의 날 편지 발송 행사에는 오서영 교수(전주교대 평생교육원 힐링포럼)가 ‘원이엄마 편지’ 진본이 전시된 전시장에서 ‘원이엄마 편지’ 한글 전문을 낭송할 예정이다.

관계자는 “‘수계도’ 및 ‘원이엄마 편지·미투리’ 진본 특별공개를 통해 조선시대 서간문화를 폭넓게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은성 기자

## 전라북도보조기기센터 장애아동 콜젤시트 지원

전라북도보조기기센터는 장애아동에게 콜젤시트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콜젤시트는 상온보다 온도를 3~4℃ 낮게 유지시켜줘, 장시간 앉아 있어야 하는 장애아동들이 시원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만든 제품이다.

특히, 올해는 이른 5월부터 불볕더위가 시작되어 한 여름 기온은 평년보다 더울 것으로 예측되어 접수기간 전부터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

콜젤시트는 헤스테나(주)로부터 후원받아 30여 명의 장애아동들에게 지원된다.

냉장실에 5분 정도 보관하고 무모차, 카시트 등에 넣어 사용하면 오랫동안 시원함을 느낄 수 있다.

콜젤시트 지원 접수기간은 오는 29일까지 진행된다.

전자우편(rambo0430@jic.ac.kr) 또는 팩스(063-220-3005), 우편을 통해 접수 가능하며, 해당 사업에 관한 문의는 전라북도보조기기센터(063-220-3000)로 하면 된다.

한편, 전라북도보조기기센터는 도내 거주하는 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의 독립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상담 및 평가, 적용 및 훈련, 개인 맞춤형 개조 및 제작 등의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이다.

/정은성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전북대 학생들이 최근 새만금술라파워(주)가 주최한 대학생 로고 디자인 공모전에서 대상을 비롯해 다수가 수상했다.

## 전북대 학생들, 기업 공모전 수상 휩쓸어

### 한수원 설립 새만금술라파워 로고 공모서 5명 수상 쾌거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 학생들이 최근 새만금술라파워(주)가 주최한 대학생 로고 디자인 공모전에서 대상을 비롯해 다수가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공모전은 새만금술라파워(주)가 자사 기업을 상징하는 로고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공모한 것. 이 기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 친환경 재생에너지와 수상태양광 등을 상징하는 로고 디자인이 공모 주제였다.

지난 3월 25일부터 한 달 가량 진행된 이번 공모전 영예의 대상은 전북

대 김수린 학생(산업디자인학과)에게 돌아갔다. 김수린 학생은 ‘물과 태양이 이끄는 새로운 발전’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수상태양광을 상징하는 물과 태양을 무한대의 연결고리 모양으로 배치해 내성할 수 있는 에너지임을 표현한 로고를 만들어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았다.

이와 함께 2등인 우수상에 진용훈 학생(산업디자인학과)을 비롯해 이지원(산업디자인학과), 진예진(산업디자인학과), 조형진(기계설계공학과) 학생이 장려상을 각각 받았다.

이번 공모전에서 전체 10명의 수상자 중 5명이 전북대 학생으로 구성돼 학생들의 뛰어난 창작 역량을 엿볼 수 있었다는 평가다.

대상의 영예를 안은 김수린 학생은 “이번 공모전을 준비하면서 학생으로서의 창의적인 생각을 보이고자 노력했던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져 기쁘다”며 “지금의 성과를 발판삼아 창의적인 작품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상식은 지난 5월 8일 군산에 있는 한국수력원자력 새만금사업추진단에서 열렸으며, 대상 수상자에게는 300만 원, 우수상에는 150만 원, 장려상에는 각 50만 원의 상금과 상패가 각각 주어졌다.

/정은성 기자

## 맞춤형 진학지도로 만족도 UP

### 전북교육청, 대입 아카데미 운영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일반계 고교 교사의 대입 진학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대입 아카데미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내일부터 6월 8일까지 전북대학교 사범대 본관 2층에서 매주 토요일 오전 일반계 고교 교사를 대상으로 대입 아카데미 기반반과 심화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기반반은 진학지도 경험이 없거나 부족한 교사, 현행 대입제도 및 전형 정보가 부족한 교사, 체계적인 대입 진학지도 방법을 알고자 하는 교사 40명을 대상으로 하며 ▲대학의 신입생 선발과정 이해와 입시결과 분석 ▲대입전형(수시/정시) 및 학생부종합전형의 이해와 전망 ▲대입전형의 유형별 특성 및 입시전략 ▲대입진학지도를 위한 맞춤형 진학상담의 실제 ▲학생부종합전형 대비를 위한 자기소개서 및 면접 대비법 ▲대입전형 합격 사례로 보는 입시 전략 ▲학생부종합전형 이해 (학교생활 및 학생부기록) ▲대입 진학지도 매뉴얼 등에 대한 강의와 토의가 이어질 예정

이다. 심화반은 2019년 대입진학지도 지원단 또는 5년 이내 지원단 유경험자, 최근 5년 이내 일반계 고3 진학부장 또는 담임교사 유경험자, 최근 5년 이내 일반계 고2, 2 담임교사 3년 이상 유경험자 4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교육과정 기반의 진로진학지도 ▲사회변화에 맞는 진로지도 ▲의·치·한·약학·보건계열 지원전략 ▲학생부 종합전형의 이해와 지도 ▲대입정책과 입시전략 이해 ▲수능전형의 이해와 지도 ▲학생부교과전형의 이해와 지도 ▲논술전형의 이해와 지도방법(문답/자연) 등에 대한 강의와 토의가 이어질 계획이다.

이에 도교육청은 일반계 고교 교사의 대입 진학지도 역량을 강화해 자신감을 키우고 학생, 학부모의 담임 및 교과 교사에 대한 신뢰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대입전형 지원 전략을 통해 대입 맞춤형진학지도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학생 고교 생활(3년)에 대한 학교·교사 지원의 내실화 및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은성 기자

